

도교육청, 연도별 학교 설립 계획 확정

내년 3월 1일 에코시티 내 솔내초 · 2019년 만성지구 내 양현초 등 신설 신규 주택단지 교육 환경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기여 전망

전북도교육청은 향후 연도별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기한다. 도교육청은 2018년 3월 1일자로 전주 에코시티 지역에 솔내초등학교(송천동2가 117-9)를 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개교하며, 솔내초병설유치원도 4학급(일반 3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함께 문을 연다.

2019년에는 전주 만성지구에 양현초등학교(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 119-1)를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단설유치원인 익산 솔리유치원(익산시 오산면 향정로 129)은 일반 6학급, 특수 6학급 규모로 신설한다.

학교이전으로 군산초등학교(군산시 지곡동 151-6)와 월명초등학교(군산시 수송동 885-2)를 각각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개교하며 양현초, 군산초 월명초병설유치원도 함께 문을 연다.

2020년에는 전주시 에코시티 지역에 봉암초등학교(전주시 송천동2가 117-9)와 화정중학교(전주시 송천동2가 117-2)가 초등학교 43학급(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중학교 31학급(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단설유치원인 화정유치원은 10학급(일반 9학급, 특수 1학급)으로 개교한다.



아이숲 조성 기념식 아이들을 위한 자연 속 놀이터인 '아이숲' 조성기념식이 2일 전주시 남소송동 전주풍남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아이들과 함께 생태 숲 공간으로 탈바꿈된 아이숲 길을 걷고 있다.

또한 만성지구에 만성중학교(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902-1)를 일반 24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개교하며 청원초등학교(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3)는 24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한다.

도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의 교육 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의 교육 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해은 기자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최종 선정

도교육청, 온라인 · 모바일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통해 결정 최종 선정된 42개 사업 대상 5월초 컨설팅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2017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에 4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학생 25개, 학부모 31개, 교직원·주민 73개 등 총 1백29개 사업이 접수되어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예비심사를 통해 이 가운데 67개 사업(학생 13개, 학부모 11개, 교직원 및 주민 43개)을 예비선정한 뒤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42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온라인·모바일 투표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주민 총 7천7백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학생 12개, 학부모 10개, 교직원·주민 20개 사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7개, 군산 10개, 익산 8개, 남원 2개, 김제 2개, 완주 2개, 진안 2개, 무주 3개, 임실 2개, 순창 1개, 고창 1개, 부안 2개이다.

도교육청은 최종 선정된 42개 사업을 대상으로 5월초 컨설팅을 실

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현을 위한 협의와 지원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사업시행 대상 학교 교장, 행정실장, 사업재안자, 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절차 및 컨설팅 의견 전달을 위한 주민참여 제안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중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해당학교에서는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초등학교 학생회실 설치 지원

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25개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50개교 등 총 75개 학교에 학생회실 설치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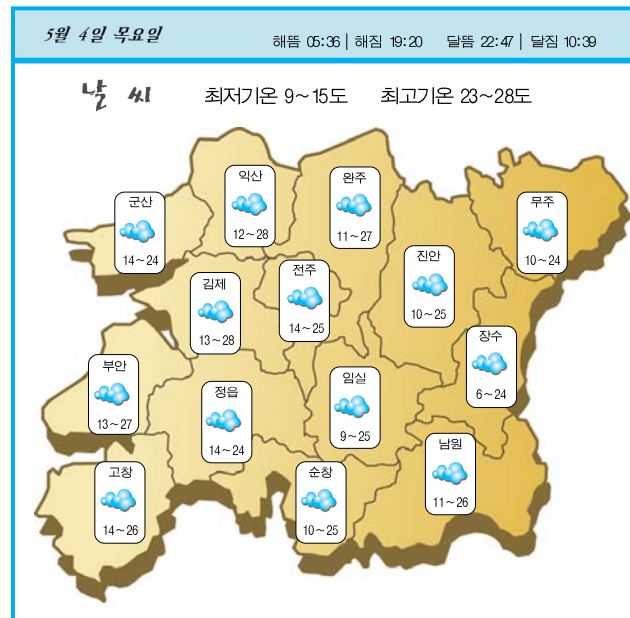
2일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올해 총 3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25개교를 포함 총 75개 학교에 학생회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중순까지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실 절반크기(3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 학교에 대해 1교당 400만원을 들여 시설 설치와 리모델링 비용, 탁자 등 비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전주 군산 익산 등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한편 학생들의 접근성, 학생자치활동시간 등이 활성화돼 있는 학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도내 233개 초중고교에 학생회실이 설치될 전망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우주 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탄소복합재 초고온 세라믹 코팅기술 개발 진행

정부가 2020년 달 탐사와 2030년 화성 탐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사체가 우주로 나가거나 지구 궤도로 재진입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고온 극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재료에 대한 개발은 아직 더디다.

선진국들 역시 이 기술을 각종 전략산업으로 규정해 해외기술 도입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국내 우주 개발에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초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우주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29억 원의 지원을 받아 우주 발사체가

2,500°C 이상의 극한의 열에 견디고 깎이지 않도록 해주는 탄소복합재 초고온 세라믹 코팅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주항공용 고온 내열 재료는 탄소 복합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낮은 산화 저항 특성으로 인한 질량손실 발생으로 단 시간만 사용이 가능한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 복합재 초고온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전북대는 기존 이종 물질 간 결합이나 산화성이 낮은 화학기상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이 아닌 진공 플라즈마 용사코팅을 이용한 직접 코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다양한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를 주말을 이용해 잇따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및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13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설명 및 학생부종합전형 사례를 통한 수시 지원 전략 안내에 중점을 둔다.

또한 2018학년도 사립학교입학전형 및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연다.

고3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사립학교 입학전형 설명 수시지원 전략을 안내한다.

직접적인 대입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설명회 외에도 일반고 진학지도 경험이 적은 교사들을 위한 대입아카데미 직무연수를 개설해 토요일 4회 16시간을 운영하며 진로에 따른 학과선택을 안내하고자 고 1, 2학년 대상 진로진학상담부스를 오는 27일 도교육청과 6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